GAME NEWS

2026/03/23

작성자 : 김승민 (게임소프트웨어전공 3학년)

▲ 'Nientum-Op.Zero' 신데렐라 클리어 이미지. [사진=스팀 상점 페이지]

케세라게임즈 'Nientum-Op.ZERO' 봄 맞이 첫 할인

▲ 'Nientum-Op.Zero' 플레이 이미지. [사진=스팀 상점 페이지]

리듬 게임 'KALPA'의 개발사로 잘 알려진 케세라게임즈(QueseraGames)가 2025년 11월 24일 출시한 신작 '니앤텀 - 오퍼스 제로'가 이번 스팀 봄 할인을 맞이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첫 할인을 시작했다.

'니앤텀'은 플랫포머와 액션, 어드벤처 요소가 조화롭게 결합된 2D 횡스크롤 리듬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스테이지 곳곳에 흩어진 깨진 음정의 파편들을 주인공의 능력으로 조율하고 음악을 연주하며, 망가진 무대 장치를 복원해 공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작중 알레프는 무대 뒤에서 망가진 음정을 조율하고 음악을 복원하며 완벽한 공연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된 무대 위에서 리오라가 본격적인 공연을 펼친다. 오즈의 마법사, 신데렐라, 카구야 공주 등 대중에게 친숙한 이야기들을 게임만의 특징을 담은 뮤지컬로 재해석하여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게임의 중심이 되는 두 소녀가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은 스토리 진행에 따라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며, 연극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양한 요소들을 기록하고 감상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또한, UI 노트가 떨어지는 판정선에 맞춰 버튼을 입력하는 전통적인 리듬 게임 방식에서 벗어나, 앞에 나타나는 절벽을 뛰어넘거나 몬스터를 처치하는 등 게임 속 난관을 리듬으로 구현하여 플레이어에게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펄어비스 '붉은사막' 조작감 개선 패치 공지 및 적용

▲ '붉은사막 '스팀 상점 이미지. (사진=스팀 상점 홈페이지)

펄어비스가 2026년 3월 20일 야심 차게 출시한 '붉은사막'이 초반 흥행과 별개로 조작감 논란에 휩싸이자, 공식 패치를 통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붉은사막'은 광활한 파이웰 대륙에서의 전투와 탐험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터전 '페일룬'을 되찾기 위해 회색갈기 캠프에서 시작되는 깊이 있는 여정을 담아내며 출시 직후 높은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조작감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특히 펄어비스의 홍보 및 마케팅 디렉터인 윌 파워스가 "조작감 문제는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유저들의 공분을 샀고, 이는 결국 스팀 등에서 복합적 평가를 기록하게 됐다.

이에 펄어비스는 3월 23일 패치를 통해 유저들의 불만 사항을 대폭 개선했다. 이번 패치노트에는 상호작용 UI 표시 속도 향상, 점프 입력 및 캐릭터 이동 시의 조작 반응성 개선 등 실질적인 플레이 체감을 높이는 내용들이 포함한다.

펄어비스 측은 "소중한 시간을 내어 소중한 경험과 피드백을 공유해 주시는 모든 플레이어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게임 전시회 PlayX4 5월 21일 목요일부터 4일간 진행

▲ 'PlayX4' 전시회 날짜 이미지. [사진=PlayX4 홈페이지 공식 이미지]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 전시회 중 하나인 2026 플레이엑스포(PlayX4)가 오는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개최를 확정 됐다. 지난 2025년 행사 당시 총 11만 명의 관람객 유치와 2,000여 개의 부스 운영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며 식지 않는 인기를 입증했다.

전시회는 PC와 온라인 게임은 물론 콘솔, 보드게임, 다채로운 무대 행사 등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콘텐츠를 선보인다. 비즈니스 매칭 중심의 B2B와 대중적 화제성을 B2C를 운영함으로써, 기업과 일반 관람객 모두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융합형 전시회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보드게임존, 루미아 야시장, 세미나관 등 다양한 공동관을 운영하여 참관객 친화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부대행사와 콘텐츠를 강화하고 공간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여, 전시회라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매력적인 콘텐츠가 되도록 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부스 참가 신청은 기업, 학교, 개인 구분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지금은 부스 대기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